EMERiCs
이슈분석

2016년 9월 7일
중남미 | [경제] 에콰도르

한·에콰도르 SECA 3차 협상 개시

이시은 전문연구원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주요 내용

□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3차 협상이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실시됨.

□ 양국은 SECA 체결을 통해 수출경쟁력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함.

□ 오는 10월 양국은 한국에서 4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며, 향후 SECA 체결을 통해 포괄적이고도 균형 잡힌 교역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슈 현황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1] 3차 협상이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실시됨.[2]

-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3차 협상에서는 1차 양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상품협정문 본문과 무역 구제분야 협정에 대한 합의안 모색한 것으로 알려짐.
  - ○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1차 양허안(offer) 및 양허요구안(request)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 ○ 또한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규범분야에서는 지재권에 대한 통합협정문 마련,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협상 계획에 대해 합의함.

- 아울러 한국 측은 에콰도르의 세이프가드 조치[3], 자동차 쿼터제의 철폐를 요청하고, 에콰도르는 자국 농수산물 검역요건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표 1. 한·에콰도르 SECA 체결관련 본 협상 일정

	일정	주요내용
	2015.8.25	- 양국 간 SECA 체결 협상 개시 선언
1차 협상	2016.1.26.~28	- 상품·원산지·통관·서비스·투자·무역구제· SPS·TBT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2차 협상	2016.3.14.~18	- 1차 협상 시 논의했던 상품서비스투자 등 14개 분야에 대한 논의 - 정부조달·지적재산권·협력·경쟁·노동·환경·분쟁해결 등 7개 분야 협상을 새롭게 시작
3차 협상	2016.8.22.~26	- 1차 양허안 논의 진행 및 2차 상품 양허안 교환방식과 일정 합의 -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양국은 SECA 체결을 통해 수출경쟁력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함.

- 에콰도르는 자국의 4대 교역 대상국인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이번 협상에 대해 매우 적극적임.
  - ○ 에콰도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과 SECA체결을 논의하고 있음.[4]

1) SECA는 전략적 경제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으로 사실상 FTA와 동일하나 에콰도르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FTA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음.
2)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개최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연기됨.
3)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원유가격하락과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악화로 약 2,800개(수입제품의 32%)의 수입제품에 5~4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정책을 발표함. (자본재 및 원자재는 5%, 기초생활용품 15%, 타이어 및 오토바이 부품 등 25%, 오토바이 및 전자제품에 45%의 추가관세 적용)
4) 에콰도르는 미국과 EU등의 선진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는 특혜무역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 또한 FTA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을 위한 무역협정(ACD: Acuerdo Comercial para el Desarrollo)'을 제시하고, 이 모델에 입각하여 터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등과 협상을 추진함.

○ 에콰도르의 대 한 무역수지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에콰도르는 한국이 자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칠레(2004년 발효), 페루(2011년 발효), 콜롬비아(2016년 발효)와 FTA를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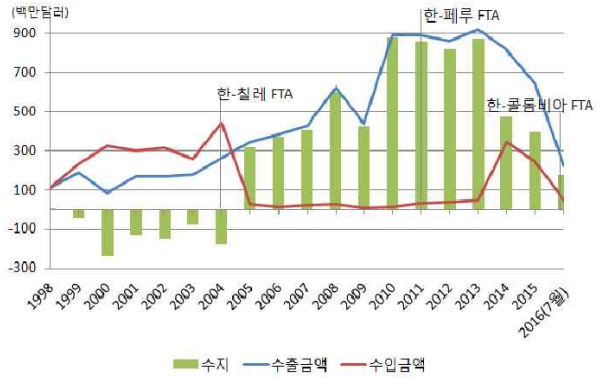
○ 또한 에콰도르는 2000년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선언한 이후, 통화정책부문 자율성이 없어져 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함.

- 한편 한국 역시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가진 에콰도르를 중남미의 주요 수출기지로 삼아 기업들의 수출 증진을 시키고자함.

○ 한국은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 부품 등을 주로 수출하며, 에콰도르는 원유, 동, 새우, 과실류 등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그림 1. 한국의 대 에콰도르 수출입 추이 199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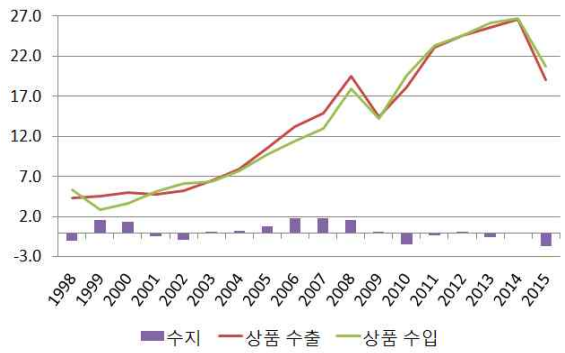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2. 에콰도르의 수출입 추이 2000-2015

(단위: 십억 달러)



자료 : Banco Central de Ecuador

2 전망 및 시사점

오는 10월 양국은 한국에서 4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며, 향후 SECA 체결을 통해 포괄적이고도 균형 잡힌 교역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SECA 체결시 한국은 고관세 수출품인 자동차(35~40%)나 전자제품(15~25%)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외에 에콰도르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기, 자동차 수입 제한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부문 등에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5) 2012년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간 동종 상품은 17개, 페루는 13개, 칠레는 9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쟁국과의 FTA 체결로 에콰도르는 10여개 상품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발표됨. (Pro Ecuador)

- 한편 에콰도르가 SECA를 통해 상품교역에서 나아가 한국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위한 효율적인 협력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함. EMERiCs

출처
각종 현지언론, 산업부 보도자료, KOTRA, Pro Ecaudor 등